

창간에 즈음하여 : 개방시대의 완전경쟁

한국닭고기산업 축산업중 경쟁력 가장 뛰어나

먼저 "계육산업뉴스"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 끊임 없이 펴내어 한국 닭고기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가 하나로 되어 가는 개방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적인 조작없이 산업 그대로서 서로 경쟁하여 교류하는 그런 열린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닭고기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도 앞으로는 세계가 하나의 시장속에서 완전경쟁(perfect competition)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닭고기산업은 그동안 많은 성장을 거듭해 온 것이 사실이나 아직도 대낮에 도깨비가 난무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근대적인 산업체제를 갖추게 되면 한국축산업가운데 가장 경쟁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20여년간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꾸준히 준비를 해온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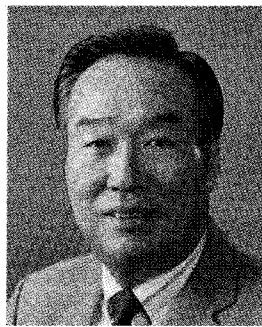
이 "뉴스"의 창간에 즈음하여 다시금 아래 세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통합체제를 조속히 완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통합경영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체계화하는 것인지 잘 알고 있으며 부분통합이 여기 저기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의 참 성과는 완전통합에서 나타나므로 직접 소유 또는 컨소시엄 형태의 전 산업적인 통합체제를 하루속히 완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계 자체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경



박 영 인

대한가금처리협회 고문

쟁력을 키우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닭고기의 총수요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국내소비를 우선 10kg 수준으로 늘리고 수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다양한 제품 및 용도개발은 물론 닛치마케를 겨냥한 개별 상표선전, 그리고 산업차원의 자조금에 의한 상품홍보에 전력투구할 때입니다.

지금부터 1인당 소비 20kg, 수출 10만톤의 수요확대책에 대한 장기계획과 전략을 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닭고기산업이 경쟁속에서 발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셋째, 각부문이 공존공생하는 것입니다. 통합체계가 완성된다해서 통합주체가 기존 각부문의 사업을 모두 흡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기능과 사업은 그대로 존속하되 가장 효율적인 경영방법으로 통합 재편될 뿐입니다.

따라서 각부문은 상호의존, 공생공존 할 수 있게 각기능의 효율을 극대화 해야 합니다.

또 3 I (Individual / 개인, Integration / 통합, Industry-International / 산업-세계)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여 수입에 대응하고 산업, 정책, 학술, 언론 등 모든 관련부문도 제몫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한국의 닭고기산업"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배가 계속 항진할 수 있도록 "계육산업뉴스"가 조타수의 보조역을 맡아주길 바랍니다.